

불붙은 KIA 위즈덤, 홈런 2방 폭발

박병호·오스틴등 제치고 홈런 단독 선두

KIA, SSG 랜더스에 11대 5로 승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홈런 2개를 터트리며 홈런 부문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위즈덤은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 경기에 5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2방을 몰아쳤다.

2회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위즈덤은 SSG 선발 투수 문승원의 슬라이더를 통타해 선제 2루 홈런을 쳤다.

4회 우익수 뜬공에 그친 위즈덤은 6회 선두 타자로 출격해 좌전 안타

를 날려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달성했다.

패조의 타격감을 보여준 위즈덤은 네 번째 타석에서 또다시 대포를 폭발했다.

팀이 8-2로 리드한 7회 1사에서 등장한 위즈덤은 송영진의 직구를 걸어 올려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이날 6, 7회 홈런을 기록한 위즈덤은 박병호(삼성 라이온즈), 오스틴 딘(LG 트윈스·이상 5개) 등을 제치고 홈런 부문 단독 선두에 등극했다.

이날 KIA는 SSG 랜더스에 11대 5로 승리했다.

/뉴스시스



3월 25일 KIA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KIA위즈덤 4회 말 홈런.



임종훈-김나영, WTT컨텐더 타이위안 혼합복식 우승

한국 탁구 혼합복식 듀오 임종훈(한국거래소)-김나영(포스코인더스트리얼)이 12일 중국 산시성의 타이위안에서 열린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셰페이-치안티아니 조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WTT 공식 SNS 캡처

이정후, 양키스전서 3경기 연속 장타

2루타 8개로 1위...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윌버 플로레스(왼쪽)와 이정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패조의 타격감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13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양키스와의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날 2루타를 생산한 이정후는 지난 10일 신시내티 레즈전부터 3경기

연속 장타를 터트렸다.

올 시즌 2루타 8개로 카일 터커(시카고 컵스·7개)를 제치고 MLB 이 부문 전체 1위로 올라섰다.

다만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40에서 0.333으로 소폭 떨어졌다.

샌프란시스코(10승 4패)는 양키스(8승 6패)에 4-8로 져 3연승에 실패했다.

/뉴스시스

김민주, KLPGA투어 iM금융오픈 첫 우승

95번째 대회 만에 첫 정상...방신실·박주영 준우승



김민주가 한국여자자프로골프(KLPGA) 투어 iM금융오픈(총상금 10억원)에서 첫 우승했다.

김민주는 13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신산(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이로써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김민주는 공동 2위 방신실과 박주영을 3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22년 KLPGA 정규 투어에 데

뷔한 김민주가 95번째 대회 만에 거둔 첫 우승이다.

종전 최고 성적은 데뷔 첫해인 2022년 쉐들리온 컨즈 마스터스 준우승이었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선두에 2타 뒤진 단독 5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민주는 조속 9m가 넘는 강풍에도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선두로 도약했다.

9번 홀(파5)에선 티샷한 공이 나무를 맞았지만, 그린 주위 칩샷이 버디로 연결되면서 분위기를 뒀다.

이어 10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타 차 단독 선두가 된 김민주는 방신실이 12번 홀(파4) 보기를 범하며 2타 차로 달아났다.

17번 홀(파3)에서 다시 한 타를 잃었지만, 18번 홀(파5)에서 다시 한 타를 줄이며 우승에 췌기를 박았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방신실은 1번과 3번 홀 버디로 치고 나갔으나, 후반에 2타를 잃어 우승을 놓쳤다.

방신실은 박주영과 함께 12언더파 276타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공동 4위 그룹엔 9언더파 279타를 친 이가영, 지한솔, 리슈잉(중국)이 자리했다.

전남드래곤즈, 원정 화성FC에 2-1승

‘첫 연승’·4승 2무 1패...호난·알베르티 데뷔골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12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원정 화성FC와의 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2025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다.

전반 33분 자신이 얻어낸 PK를 직접 처리한 호난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자신의 시즌 전남 데뷔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호난의 선제골로 화성에 1-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화성은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2명의 선수를 교체투입으로 변화

를 주었다. 이에 백중세의 흐름을 이어가던 중 후반 11분, 전남은 주장 발디비아를 정강민 대신 교체 투입하며 발디비아는 4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후반 36분 전남의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알베르티가 원터치로 때린 중거리슛이 골망을 흔들었다. 알베르티 또한 호난과 마찬가지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승점 14점(4승 2무 1패)으로 무패로 승점 15점(4승 3무)의 성남FC에 이어 상위 선두권을 유지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